

오늘의 계시판

오늘의 계시판
(23일)
▲2006 대한민국 에너지체험전=오전 10시 김대중컨벤션센터, 석탄, 석유, 신·재생 에너지 절약관 등 9개 주제별 전시관 운영, 26일까지.

▲단군 숭모회=오전 10시 진도향교 단군전.
▲제 2회 충무기 초등학교 축구대회=오전 11시 여수시 진남경기장.
▲제 80회 순천사랑 아카데미=오후 2시 순천문화회관 소극장.

교육원장이 '국민소득 2만달러로 가기 위한 노사관계의 패러다임'에 관해 강연.
▲유비쿼터스 여수엑스포 시티 추진을 위한 포럼=오전 10시 전남대 여수캠퍼스 내 산학연기관 1층 합동강의실.

남쪽 4층 다목적세미나실. 전강주 대구가톨릭대 부동산상학부 교수가 '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구체적 실행전략'이라는 주제로 강연.

▲오페라 '일 트로바토레'= 23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회관 대극장.
▲광주시립교향악단·합창단 합동공연=24일(금)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회관 대극장.

▲제 8회 무등음악회=24일(금) 오후 6시30분 광주문화예회관 소극장.
▲광주대 사진영상학과 작품전=12월1일까지 광주대 예술대 3층 갤러리, 중앙도서관 세미나실.

▲국제환경 사진전=30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공간. '물 오르다'라는 주제로, 물의 역사·문화·미학·사회학 등 물의 모든 측면을 조명.
▲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기원 강연회=오후 2시 여수시청 회의실.

제 3회 여수돌산갯김치축제

개막식 오후 6시 여수시 종화동 하멜 해양공원



엄앵란의 사랑과 결혼

45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로

그렇듯한 멋진 외모에 조용한 성격인 A양의 하루 일과는 집-직장-집-TV 시청과 독서-취침 이렇게 단조롭게 반복된다.
그리 예쁘지는 않지만 정감 있는 얼굴에 사교적인 성격인 B양의 하루 일과는 좀 다르다.

정이고 또 자신의 삶의 에너지라고 생각한다.
당신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?
A유형에 가까울수록 애인이 생길 확률은 낮아지며 B유형의 사람일수록 애인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.

이 무작정 뛰어들었다가는 호랑이에게 잡아 먹힐 수도 있으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.
힘이 없다면 피라도 내어 완벽하게 호랑이를 둘러쌀 준비가 되었을 때 호랑이굴에 들어가야 멋지게 해낼 수 있다.

요즘은 자연스럽고 신나는 싱글파티도 이곳 저곳에서 열린다.
또 결혼을 계획하는 많은 싱글들이 등록되어 있는 믿을만한 결혼정보회사에 직접 찾아가 진실한 상담을 받아보고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.

적극적인 자세로 연인을 찾아 나서라
아무런 노력도 없이 나무그늘에 가만히 앉아 잘 익은 감이 저절로 입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은 결국 감이 떨어지거나 그것을 먹겠다는 의지 자체를 포기하기 쉽다.

Go board game diagram with numbered stones and a '가' label.

Go board game diagram with numbered stones and a '참고도' label.

Baduk So-sik board game diagram with numbered stones and a '중평천 7단, 농심배 3연승' label.

뉴스퀴즈

- 39. 한국 피겨 선수가 2006-2007 국제빙상경기연맹(ISU)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4차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피겨역사를 새로 썼습니다. 이 선수는 19일(한국시간) 프랑스 파리 베르시 실내빙상장에서 펼쳐진 대회 3일째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1명의 선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.

참여 방법

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올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, 1위 상성전자 고급 진공정수기 1대,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.
보내실 곳 /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-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쿼지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-711

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3일(음 10월 31日 丙寅)

- 子 36년생 불평사가 갑자기 나타나니 신중하라. 48년생 新舊文書를 잘 살펴보고. 60년생 단호한 결단을 내리라.
丑 37년생 대고에 예상외니 하루 중일 살펴보고. 49년생 대운으로 향하나 그릇이 작구나. 61년생 활발한 일터가 되니 재물이 생길 수다.
寅 38년생 잘못된 문서로 눈물이 난다. 50년생 엉뚱하게 큰일을 벌리면 먹을 밥도 못 찾는다.
卯 39년생 잘 될 때를 조심하라 예기치 않은 복이 나타난다.
辰 40년생 달빛으로는 과일이 익지 않으니 적절한 방법을 취하라.
巳 41년생 남의 입에 들어간다.
午 42년생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.
未 43년생 맑은 조용한 집안이 시끄러우니 집안을 살펴보고.
申 44년생 가끔은 싸우는 것이 부부사이지만 지나치면 큰 일 난다.
酉 45년생 많이 얻으려거든 많이 베풀어라.
戌 46년생 친구끼리 다투니 생방이 손실이다.
亥 47년생 시비 구설이 있으니 조심해야 하리라.

굿모닝 잉글리쉬 <782> 오하이오 니혼고 <782> 니하오 풍구워 <500> 한자 이야기 <400>

He's good for nothing
그 사람,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
A:What's wrong with you, Broadmann?
B:One of my clients called me to complain about our work.

現地(げんち)警察に届(とど)けてみた?
현지 경찰한테 신고해 봤어요?
A:オーストラリアは南半球(みなみはんきゅう)だから、冬(ふゆ)でも暖(ぬく)かったでしょう?
B:ええ、それに楽しかったんだけど、デジタルカメラをなくしてしまったんです。

髮(かみ)
몸이 좋아지셨습니다
A:髪(かみ)は又(また)茂(も)えました。
B:髪(かみ)は又(また)茂(も)えました。
A:髪(かみ)は又(また)茂(も)えました。

風(かぜ)樹(じ)之(の)嘆(なげき) (풍수지탄)
바람 풍, 나무 수, 어조사 지, 탄식할 탄
풍수지탄(風樹之嘆)은 글자대로 풀면 바람과 나무의 탄식이며,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어버이를 여원 자식의 슬픔을 이루는 말이다.